

女子 저고리의 形態와 機能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tyle and Function
of the Woman's Chogori

目 次

- I 序 論
- II 測定 및 結果
 - 1. 겨드랑 길이
 - 2. 도련의 曲線分
 - 3. 앞길이
 - 4. 섶넓이 및 깃
 - 5. 깃고대
- III 製圖上的 再檢討
- IV 着用實驗 및 考察
- V 結 論

國民大學 金 粉 七
Bun Chil, Kim

I 序 論

元來 우리나라 옷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上下衣式으로 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며, 上衣와 下衣의 接觸部分은 반드시 上衣가 下衣 위에 덧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上衣의 길이는 上衣 自體 또는 옷 全體의 形態와 機能에 있어서 重要的 역할을 하고 있다. 즉 美的인 면에 있어서는 저고리 길이가 짧은 것이 훨씬 우아해 보인다. 더우기 긴치마用 저고리 길이는 길이가 짧은 것이 저고리 自體나 치마의 주름 部分 등의 美的表現에 있어서, 또는 옷 全體의 形態에 있어서 貴族의인 風美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고리가 極度로 짧아졌을 때 이것은 衛生的인 면이나 機能的인 면에 있어서 극히 憂慮되는 점이 많다. 그러므로 팔을 움직였을 때의 겨드랑의 機能과 앞가슴 部分의 처리의 可能性 및 그 形態와의 關係를 밝히고 機能面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限度內의 치수를 찾아서 아름다운 저고리 모양이 될 수 있는 치수를 確認하고 從前의 저고리본 製作法을 再檢討하여 機能面으로나 形態面에 있어서 좀더 나은 저고리본 製作法을 提示하고자 한다. 긴치마用 저고리본을 研究한 것은 길이가 問題되기 때문이고 저고리는 우리나라 옷의 본 製作이나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代表的인 옷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研究는 從前의 어떻게 하면 能率의으로 좀더 빨리 아름다운 作品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에만 注力한 것도 重要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人體의 움직임에 의한 體形의 變化 및 옷의 機能의 考察, 機能의 範圍의 關係 등 基本的인 理論의 理解와 製圖와의 關連性을 分析하여 形態나 機能에 無理 없는 저고리본 製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測定 및 結果

긴치마 저고리의 全體的인 形態를 보면 저고리의 線은 大體로 固定되어 있는 一直線 또는 曲線이며 下衣의 線은 부드럽고 律動的인 線으로 그 Silhouette를 나타내는 옷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마가 길수록 우아한 모양으로 될 수 있으므로 自然히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그러나 저고리 길이가 形態에만 置重하여 極度로 짧아지면 도련 모양이 거의 一直線으로 되어 도련에서 곡선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겨드랑 길이도 짧아져서 動作을 할 때 속이 들여다보이게 된다.

活動을 별로 하지 않는 禮服은 問題되지 않지만, 平常服이나 外出服에 있어서는 活動이 可能的 범위의 저고리 길이나 겨드랑 길이를 알아서 본 製作時에 이 점을 檢討하여 調節해야겠다.

그러므로, 이 人體의 움직임에 따르는 形態와 機能面을 考察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測定을 하여 活動에 지장이 없는 最小最大의 겨드랑 길이, 도련의 曲線分, 저고리 길이 등을 計算해 냈다.

1. 겨드랑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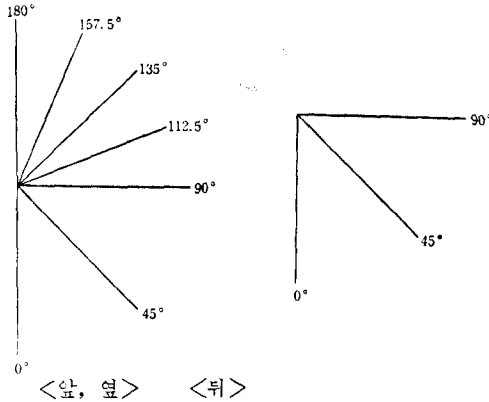
測定對象者는 20~22歲의 女子大學生으로 52명을 選定했다. 그 方法은 우선 겨드랑 部分에 關係 깊은 運動을 腕(腕)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여 腕을 앞(前), 옆(脇), 뒤(後)로 올려 각각 直上하기까지를 6段階로 나누어 測定했다. 腕의 運動을 3種類로 나누고 6段階로 나누는 것은 저고리 겨드랑의 機能은 이 세 가지 運動이 可能하면 問題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했을 때 製圖에서 計算될 것 같아서 試圖하여 보았으나 失敗하였다. 이것은 韓服은 洋服과 달라 大部分 平面的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着用했을 때 어깨 部分에 洋服의 Darts 代身 생기는 여유분 때문이라고 判斷되어 實際測定을 하게 되었다. 測定은 普遍性을 가지기 위하여 標準이 될 만한 體形을 大體로 골라 普通으로 입던 內衣 위에 긴치마저고리를 입히고 위에서 表示한 세 가지 運動에서 各 角度에 있어서 저고리 겨드랑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測定했다. 저고리는 研究者의 製圖法에 의하여 만들어진 各自의 옷이었다. 옷을 입은 腕의 機能量을 測定한 것은 치마조끼와 저고리와의 關係가 있으므로 함께 입고 測定한 것이다.

腕(腕)을 양옆에 내린 正姿勢의 角度를 0° 로, 腕이 直上했을 때를 180° 로 하고 어깨와 水平이 되게 한 姿勢를 90° 로 하였다. 測定方法은 角度를 表示한 종이를 벽에 붙이고 各 角度까지 腕을 올리고 저고리 겨드랑의 움직임 量을 測定했다. 이것은 人體의 움직임에 따르는 옷의 機能量을 測定한 셈이 된다.

女子 저고리의 形態와 機能의 관한 研究

이 팔의 上昇에 따르는 저고리 겨드랑의 機能量은 겨드랑 길이나 部分에는 關係 없으나 저고리 품에 影響이 미침을 考察하였기 때문에 저고리 품에 注意하여 測定하였다.

앞, 옆의 운동은 0°에서 180°까지 測定했으나 뒤는 팔이 올라가는 角度까지만 測定했다.



(그림 1) 測定用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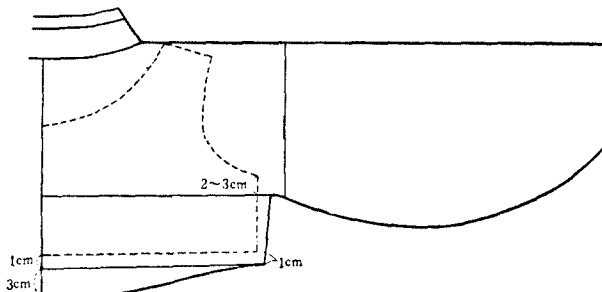
〈表 1〉 저고리 겨드랑 移動線의 길이의 測定結果(平均値) (52名)

角度	운동	앞(前) (cm)	옆(脇) (cm)	뒤(後) (cm)
0	(正姿勢)	0	0	0
45		0.5	0.8	1.2
90		1.6	1.8	2.2
112.5		2.3	2.8	—
135		3.4	4.2	—
157.5		4.1	5.0	—
180		5.9	5.9	—

測定結果를 보면 機能量이 앞(前), 옆(脇),

뒤(後)의 順으로 조금씩 커졌는데, 그것은 人體의 運動이 앞보다 옆이 더 크고 後側은 量이 크다는 것보다는 位置의 變化 때문이라는 것을 考察할 수 있었다.

各 角度에 따르는 運動을 보면 157.5°, 180°로 팔을 올리는 運動은 거의 하지 않으나 157.5°, 135°, 112.5°, 90°의 運動은 가장 빈번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스 탈 때나 다닐 때, 그리고 車內에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또는 黑板에 글씨 쓸 때 등의 운동이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저고리 겨드랑의 最小 길이는 90°運動에 있어서는 저고리 겨드랑의 機能量이 1.2cm 있으므로 별 지장이 없고 112.5°運動부터 問題가 된다. 그것에 알맞는 겨드랑 길이는 約 2.8cm이고 最大의 길이는 約 5.9cm로 된다. 그러므로, 겨드랑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저고리 겨드랑의 길이는 4cm(表1, 4, 2) 이상 있어야 하고 치마조끼 겨드랑 길이는 6cm 以上 되어야 한다. 조끼 겨드랑 길이가 저고리 겨드랑 길이보다 위쪽으로 2~3cm



(그림 2) 저고리 겨드랑과 치마조끼 겨드랑과의 길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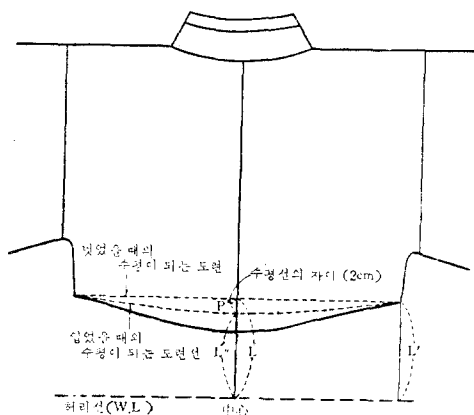
더 길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2~3cm 때문에 저고리와 치마조끼가 2~3cm 덧놓이므로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고 安全해진다는 結果가 된다. 또 저고리 길이도 $\frac{B}{4} + 4cm$ + 曲線分이 되는가를 檢討할 수 있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단 진동넓이는 胸圍의 $\frac{1}{4}$ 로 計算되었을 때이다.

치마조끼와 겨드랑과의 關係에서 조끼와 저고리의 겨드랑은 大體로 그림 2와 같이 뒷 中心에서 4cm 差異이지만 겨드랑에서는 도련쪽에서 조끼가 1cm 짧고 $\frac{B}{4}$ 線에서는 위로 2~3cm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으면 結局 조끼 겨드랑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된다. 이 部分이 餘分이 되므로 팔을 올려도 덧놓이게 되는 셈이다.

2. 도련의 曲線分

도련의 曲線分은 우선 도련이 一直線이 되려면 製圖上의 一直線에서 除去되는 分을 알아야 하므로 胸圍 84cm, 등길이 36cm 되는 女大生 10명을 對象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測定을 하였다.

그림과 같이 저고리를 벗었을 때 平面上에 놓고 저고리 겨드랑 끝과 水平이 되는 線을 表示해 놓은 저고리를 입힌 후 腰圍에 노끈을 매고 直立正姿勢로 세워 ①뒷허리 中心點에서 저고리에 미리 表示해 놓은 水平線의 中心點까지를 재고 (L), ②저고리 겨드랑 끝에서 노끈까지 재었다(L') ③저고리를 입었을 때의 水平이 되는 中心點과 허리 中心點까지를 재었다(L''), 이 길이는 입었을 때 L'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재면 된다. 여기서 보면 저고리를 입었을 때와 벗었을 때의 一直線이 되는 差異는



을 P (실제 측량에서 平均值—2cm)가 되므로 뒷도련선이 입었을 때의 도련이 一直線이 되려면 저고리 길이가 겨드랑 길이보다 2cm가 더 길어야 된다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2cm는 뒷도련이 一直線으로 되기 위한 것이고 曲線으로 되려면 적어도 1cm 이상 必要해지는 結果가 된다.

그러므로 最小 $\frac{B}{4} + 4\text{cm}$ (겨드랑 길이) + 2cm (一直線分) + 1cm(曲線分) 이상이 되면 겨드

〔그림 3〕 뒷도련의 一直線 및 曲線分의 測定
 랑의 機能에 지장이 없는 저고리 길이가 된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그러나(2cm+1cm)는 最小의 길이이고 曲線은 보통 2cm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計算된 저고리 길이와 從前의 등길이를 基準으로 하여 計算하는 方法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저고리 길이가 된다.

등길이 37cm,	가슴둘레(B)	84cm	
例 1. A(從前)	37cm	- 5cm	= 32cm
	37cm	- 6cm	= 31cm
	37cm	- 7cm	= 30cm
	37cm	- 8cm	= 29cm
	37cm	- 9cm	= 28cm

} 짧은 치마用
} 긴 치마用

	B.	$\frac{84}{4} + 4 + 2 + 1 = 28\text{cm}$			
		$\frac{84}{4} + 4 + 2 + 2 = 29\text{cm}$)	긴 치마用	
		$\frac{84}{4} + 4 + 2 + 3 = 30\text{cm}$)	짧은 치마用	
		$\frac{84}{4} + 4 + 2 + 4 = 31\text{cm}$)		
例 2. 등길이	38cm	가슴둘레	84cm		
A. (從前)	38cm	- 5cm	= 33cm)	짧은 치마用
	38cm	- 6cm	= 32cm)	
	38cm	- 7cm	= 31cm)	긴 치마用
	38cm	- 8cm	= 30cm)	
B.	$\frac{84}{4} + 5 + 2 + 1 = 29\text{cm}$)	긴 치마用
	$\frac{84}{4} + 5 + 2 + 2 = 30\text{cm}$)	
	$\frac{84}{4} + 5 + 2 + 3 = 31\text{cm}$)	짧은 치마用
	$\frac{84}{4} + 5 + 2 + 4 = 32\text{cm}$)	

例 1에 있어서는 A와 B의 差가 없이 저고리 길이가 同一하게 나오고 또 機能에도 差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值數에 있어서는 이러한 測定法이 正當함을 알 수 있다.

例 2의 경우에는 등길이를 基準으로 하여 計算한 結果 저고리 길이가 긴 感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등길이를 基準으로 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등길이가 38cm 以上이 되는 사람일 경우 저고리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짧아도 機能에는 差가 없다는 結果가 된다.

	등길이	38cm		가슴둘레	84cm
例 3. A. (從前)	36cm	- 5cm	= 31cm)	짧은 치마用
	36cm	- 6cm	= 30cm)	
	36cm	- 7cm	= 29cm)	긴 치마用
	36cm	- 8cm	= 28cm)	
B.	$\frac{84}{4} + 4 + 2 + 1 = 28\text{cm}$)	긴 치마用
	$\frac{84}{4} + 4 + 2 + 2 = 29\text{cm}$)	
	$\frac{84}{4} + 4 + 2 + 3 = 30\text{cm}$)	짧은 치마用
	$\frac{84}{4} + 4 + 2 + 4 = 31\text{cm}$)	

例 3에 있어서도 위의 理論과 一致된다. 결국 등길이를 基準法은 등길이가 38cm 以上에서는 저고리 길이가 非合理的으로 길어진다는 結果가 된다. 이것이 考慮되어야 할 點이라고 생각한다. 키가 큰 사람도 그러하지만 특히 키가 작고 등길이가 긴 사람은 참고해야 한다.

3. 앞길이

저고리 앞길에 있어서의 形態와 機能은 앞길의 길이와 섹넓이, 깃의 位置 등이 問題된다. 저고리 앞의 形態와 機能에 있어서 考慮되는 점은 겨드랑 길이와 關連하여 앞길의 길이와 도련의 모양이다. 역시 앞 中央을 차지해 함으로써 나타내는 도련의 曲線美에 妙味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도련도 뒤와 같이 역시 겨드랑 길이와 앞 中心 길이의 差異分으로 이루어지며, 또 이것은 앞길의 길이와 뒷길의 길이의 差異도 이루고 있다. 이 앞뒷길에 있어 할 差를 위하여 實際 測定을 하여 從前의 前後差 2cm와 比較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길은 또한 치마조끼와 함께 乳房을 덮어야 하는 機能上의 問題를 가지고 있다. 즉 저고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으면 도련이 乳頭部까지 닿지 못하는 저고리가 되고 여기에 따라 치마조끼길이도 짧아지게 되므로 乳房이 조끼 밑, 주름 部分에 부풀어 나와 形態上으로나 心理的으로 不安感을 주게 된다. 이것 때문에 從來에는 도련 밑으로 乳房이 나타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치마조끼로 乳房을 내리 壓迫하였으므로 앞가슴의 成長이 憂慮되었던 것이다.

이 앞가슴 處理를 衛生的이며 形態上으로도 異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調査를 해보았다. 이 調査는 大學 3學年 學生에게 홑 Brassiere를 입히고 B.L을 測定하여 製圖한 것으로 平常服을 만들어 着用한 所感을 調査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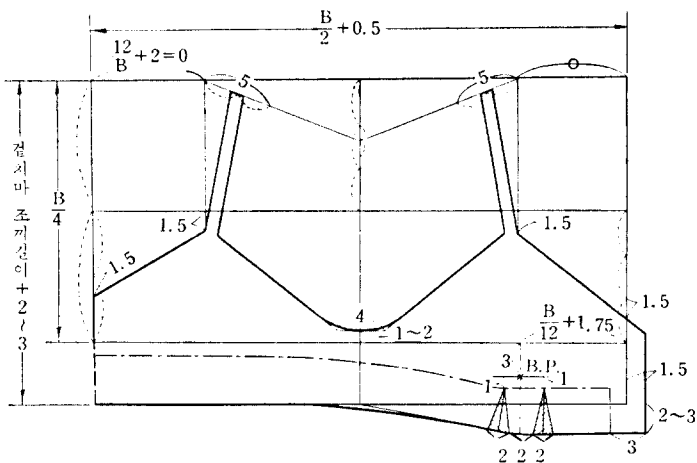
〈表 2〉 着用 所 感

종류	내 용	내 용	결과(名)
1	불편해서 다음은 중전대로 하겠다.		1 (1.9%)
2	허전하지 않고 입은 모양도 단정하므로 계속해서 이대로 하겠다.		45(86.6%)
3	별로 느끼지 못했다.		0 (0%)
4	속치마 조끼로 브래지어를 대신하겠다.		6(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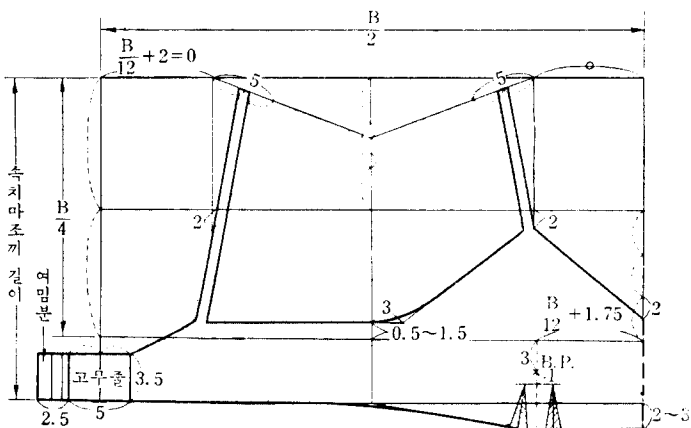
乳房을 壓迫한다는 것은 從前의 韓服의 缺點으로서 일찍부터 改良점으로 指摘받았던 것이다. 이 점이 적지 않은 原因이 되었는데, 또다시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 問題가 再起되었다. 요는 胸圍를 擴大하는 時代에 韓服은 對照的인 現象이지만 이 問題가 圓滿히 解決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着用하기 어려워지리라고 豫想된다. 더우기 洋服을 입던 젊은이들에게 期待하기 어려워지리라고 생각된다. 즉, 乳房을 壓迫하지 않는 程度로 정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홑 Brassiere의 着用 또는 Brassiere의 役割을 할 수 있는 속치마 조끼의 研究가 必要해진다. (다음은 속치마조끼와 홑 Brassiere의 본이다)

이러한 속치마조끼나 Brassiere도 저고리의 앞길이가 적어도 乳頭部를 지나 3cm 以上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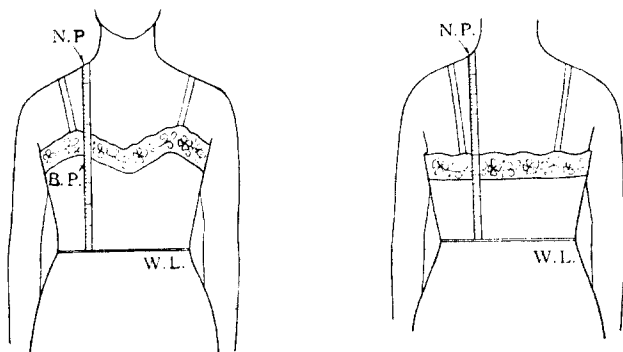


(그림 4) 속치마 조끼본



(그림 5) 韓服用 胸 Brassiere본

서 저고리 製圖에 있어서 이 部分의 長이가 普通 23.2cm + 3cm (大 ; 24.5cm + 3cm, 小 ; 21.



<앞길이>

<뒷길이>

(그림 6) 앞길이와 뒷길이 재는 법

어야 그 目的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 問題 解決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測定을 하였다.

誠信女子師範大學 2 學年 學生 標準型 20 名을 選擇하여 Chemise 를 입히고 N.P(Neck Point)와 B.P(Bust Point)에 標를 하고 그 사이를 測定하여 平均 하였다. 다음 表 3은 그

結果이다.

(表 3) N.P~B.P.의 長이
1969년 7월 현재
(단위 : cm)

크기	大	中	小	平均
部位				
胸 圍	83.6	82.1	180.6	82.1
등 길이	38.2	37.9	37.7	37.9
N.P-B.P	24.5	23.2	21.9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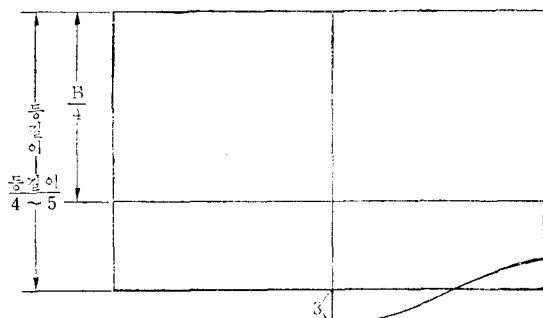
23.2cm가 平均値數인데 여기에 + 3cm(乳頭 밑)하면 26.2cm가 된다. 따라

9cm + 3cm) 以上 있어야 問題의 解決이 可能하다는 結果가 되므로 製圖에 있어서 이러한 點을 檢討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이와 함께 앞길이와 뒷길이의 差를 測定計算했다. 그 方法은 다음과 같으며 測定 對象者는 앞의 52명을 그 대로 했다.

앞길이와 뒷길이의 差는 각

個人的 體形에 따라 다르다고 判斷되어 이 치수를 세 種類로 나누어 大, 中, 小로 平均하여 얻은 것이 다음의 表 4이며 測定方法은 그림과 같다. 앞은 洋服에서 使用하는 N.P(Neck Point)에서부터 B.P(Bust Point) 直下 W.L(Waist Line)까지를 잴고 뒤는 N.P에서부터 뒷 中心에서 8cm 떨어진 곳까지를 測定하였다. 그 差를 앞치짐으로 看做했다.



〈表 4〉 앞치짐의 平均値數 (단위 : cm)

크기 部位	大	中	小
앞	40.7	39.2	38
뒤	37.8	36.7	36
差	3	2.5	2

따라서 앞도련은 뒤도련보다 2~3cm 더 曲線지게 된다.

〔그림 7〕 앞도련의 曲線

4. 설편이 및 깃

설편의 넓이는 形態上的 問題도 있지만 앞 여밈분이 설편이로 決定되므로 機能面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點을 생각하게 되었다. 길설편이 中心線과 안설편이 一致되게 되므로 안설편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最小 2.5cm는 있어야 하는데, 形態로 보았을 때는 설편이와 比例하여 길이가 짧아지면 설편이도 좁아지게 된다. 또 설편이는 저고리 길이와 關係되므로 저고리 길이가 짧을수록 설편이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참고로 바느질집에서 얻은 설편이와 길이의 關係를 標集한 것이다.

〈表 5〉 바느질집에서 標集한 설편의 넓이와 길이 (단위 : cm)

회 수	1	2	3	4	5	6	7	8	9	10	平均
넓 이	3.0	3.0	3.1	3.1	3.0	3.1	3.0	3.0	3.0	3.0	3.03
길 이	6.0	5.4	6.0	6.0	5.4	5.1	6.0	5.4	4.8 5.1	5.1	6.03

열의 結果로 보아 形態上으로는 설편이는 설편길이의 約 $\frac{1}{2}$ 에 해당하는데 形態上的 問題

밖의 다른 理由는 없는 듯하다.

또 깃넓이는 설편이에 따라 決定되고 깃길이는 진동 넓이에 따라 決定된다고 생각된다.

特殊한 體形은 더 길게 또는 더 좁게 하면 되겠지만, 저고리를 地上에 平面으로 놓고 觀察하면 當然하다고 납득이 간다. 從前的 製圖法에서 등길이의 $\frac{5}{8}$ 는 저고리 길이와 關係하였기 때문에 不合理하였다. 깃길리와 진동 넓이는 저고리 길이와 比例하지 않으나 가슴둘레와 關係된다. 즉 가슴둘레가 큰 사람은 팔(腕)도 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洋服에 使用하던 것과 같이 가슴둘레와 關係되어 $\frac{B}{4}$ 가 妥當하며 結局 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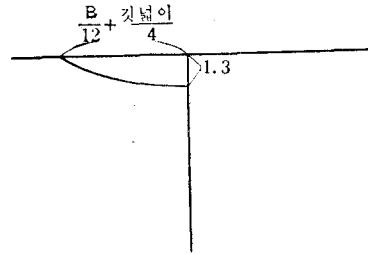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은 $\frac{B}{4}$ 線의 以下の 길이의 調節이지 진동 넓이에 關係시켜서는 안된다.

5. 깃고대

近來의 實習에서 저고리가 뒤로 넘어가는 傾向이 점점 심해감을 觀察하여 이 現象은 고대에 關係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따라서 박이접저고리를 깃을 假縫하여 달아서 잘 맞는 저고리를 만들어 깃고대를 測定하여 그 結果를 平均하여 역시 大, 中, 小로 나누어 보았다.

〈表 6〉 뒷고대 넓이의 平均值 (단위 : cm)

크기	大	中	小
가슴둘레	88	86	82
가슴둘레 12	7.3	7.2	6.9
깃 넓 이	5	4.5	3.5
뒷고대 ($\frac{1}{2}$)	8.6	8.3	7.7



〔그림 8〕 뒷고대 둥글리기

이 實驗에서 體形外에 깃넓이와 關係되는 것을 發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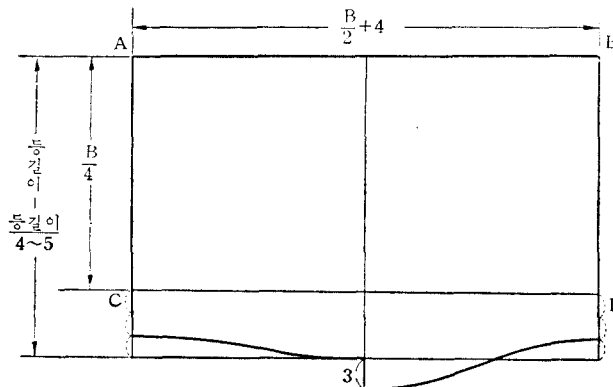
즉 깃넓이가 넓을수록 고대 넓이가 넓어지는 傾向이었는데, 이것은 $\frac{B}{12} + \frac{\text{깃넓이}}{4}$ 에 해당했고 뒷고대線은 그림과 같은 曲線으로 둥글려야 했고 그 치수는 1cm였던 것이 1.3cm로 되었다.

Ⅲ 製圖上의 再檢討

以上에서 얻은 치수와 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본을 製作할 수 있었다.

胸圍 : 84cm 등길이 : 36cm 화장 : 68cm

① 저고리본의 基本線과 겨드랑 밑길리와 도련과의 關係의 檢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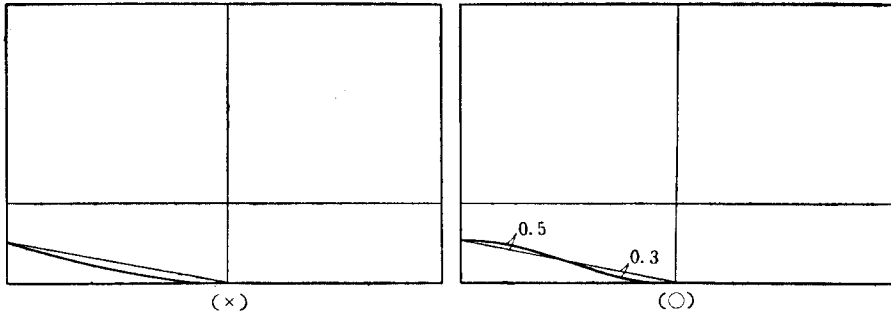


〔그림 9〕 저고리 길이의 伸縮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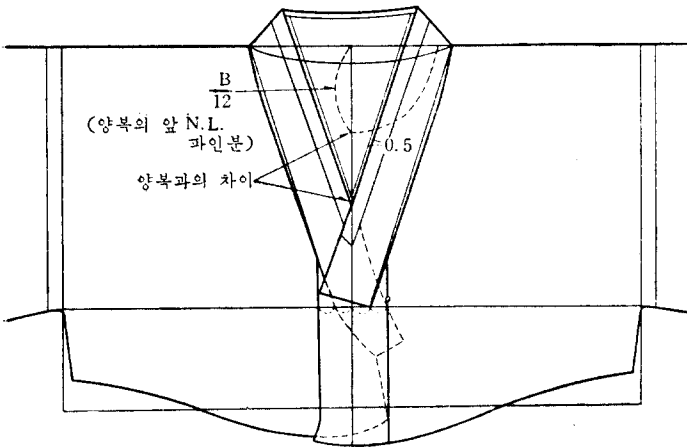
② 그림과 같이 도련을 둥글리면 작은 치수로 曲線을 效果의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저고리 길이가 짧아도 아름다운 曲線의 美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저고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은 CD線 以下の 問題이지 CD線 以上은 問題되지 않는다는 것이 考察되었다.

② 팔(腕)의 運動에 있어서 저고리 겨드랑 밑으로 나오는 조끼의 길이가 4~6cm 되므로 조끼단을 치맛감과 同一한 감으로 만들 때는 그만큼 넓게 해야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을 考察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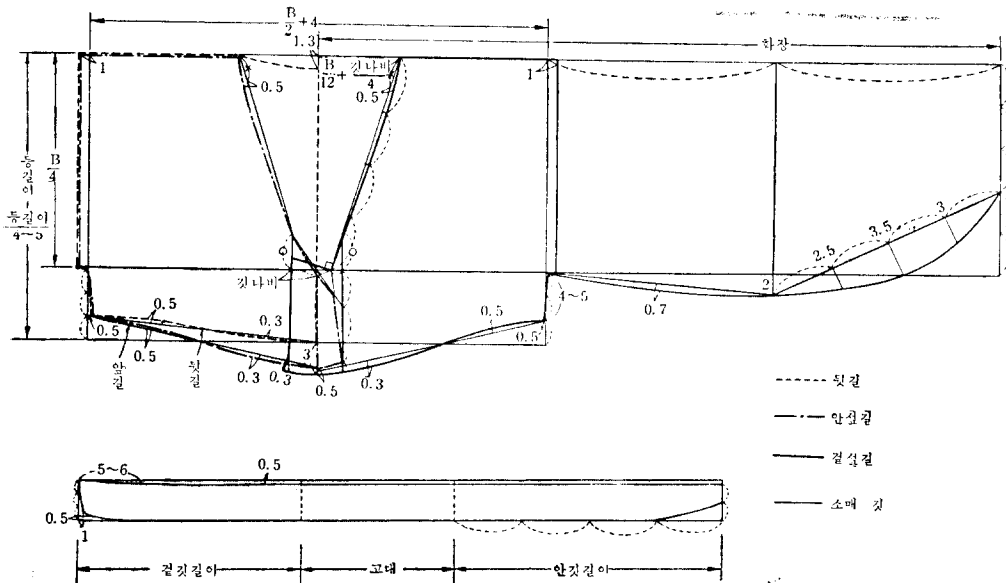


(그림 10) 效果的인 도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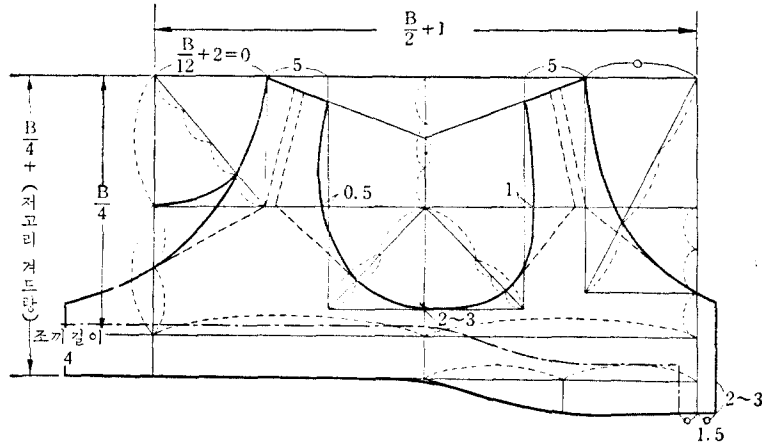


(그림 11) 깃모양의 검트

④ 깃은 以上の 結果로 製圖하면 다음과 같은 形態가 된다. 즉, 앞 목둘레에서 동정이 여미어진 데까지의 치수를 알 수 있고, 다음 그림과 같이 그 全體形態를 檢討할 수 있다.



(그림 12) 저고리 본(가슴둘레 : 84cm 등길이 : 36cm 화장 : 68cm)



[그림 13] 조끼본(가슴둘레 : 84cm, 등길이 : 36cm)

Ⅳ 着用實驗 및 考察

製圖한 본에 따라 Populin 옷감으로 만들어 胸圍 84cm, 등길이 36cm, 화장 68cm의 被驗者에게 입혀 各部分의 形態와 機能量에 대해 다음 事項을 檢討해 보았다.

① 뒷도련은 一直線보다 3cm 曲線으로 되어 약간 긴 듯하다. 평상복 긴 치마용 저고리에 適當하다고 생각되었다.

② 팔(腕)을 135°까지 올렸을 때는 約 2.5cm, 112.5°에서는 그 以上, 157.5°까지 올렸을 때 조끼와 저고리 겨드랑이 約 1~1.5cm 덧놓여 속이 들여다보일 염려가 없었다.

③ 앞 모양에 있어서 도련이 乳頭에서 2.5cm 내려와 乳房部의 整頓이 完全하며 形態도 아름답다.

④ 고대 넓이도 適當하여 입은 狀態가 正常이었다.

⑤ 깃의 位置도 豫定대로였고 등정도 알맞게 되었다.

⑥ 앞 목둘레에서 등정여밈까지의 거리가 4.5cm였는데 젊은이에게는 알맞았다.

Ⅴ 結 論

韓服에 있어서 形態上 가장 重要한 것이 上衣라고 생각됐고 저고리의 形態와 機能은 저고리 길이와 關連性이 깊다고 생각하여 우선 겨드랑밀의 機能의인 面과 도련의 形態와의 關係부터 始作하여 앞길이, 섯넓이, 깃의 位置, 진동넓이, 고대까지를 調整하였다.

製圖紙上으로나 理論으로 算出되지 않은 치수나 部分은 實際 測定으로 考察하였다. 이

考察에 의하여 身體와 本의 關係 및 平面的인 저고리가 어떻게 立體的 形態로 構成되는가를 알 수 있었으며 重要한 部分의 機能的인 치수에 의한 形態의 構成에 必要한 치수는 다음과 같다.

1. 겨드랑 밑길이 (저고리 겨드랑 밑의 機能量 4~6cm)
2. 저고리 길이..... 등길이 - $\frac{\text{등길이}}{4 \sim 5}$
3. 진동 넓이..... $\frac{\text{가슴둘레}}{4}$
4. 앞뒤길이의 差異..... 2~3cm
5. 섹넓이 $\frac{\text{깃넓이}}{2}$
6. 고대 넓이..... $\frac{B}{12} + \frac{\text{깃넓이}}{4}$

以上과 같은 치수나 方法은 從前의 것을 修正 또는 새로운 方法을 擇한 것이다. 이번 研究에서 특히 느낀 것은 韓服을 좀더 身體와 關連지어 人體에 着用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 人體를 理解하고 이와 關係를 究明하는 態度가 必要함을 切感하였다.

▶ 參考文獻

- (1) 石宙善, 우리나라 옷
- (2) 金粉玉, 韓服生活
- (3) 女苑(1967年 2月 附錄)
- (4) 中高等學校 女學生의 體型과 Basic Pattern에 關한 研究, 家政學會誌 第6號
- (5) 被服構成に 關する 教材研究((1), (2), (3), 日本家政學雜誌 第19卷 5號
- (6) 韓裁, 文教部 發行
- (7) 水梨サタ子·加藤 子·勝見和子, Time Studyによる 被服工作分析